



安 秀 桔 / 서울工大 教授 · 工博

새해 電子業界를 위한 提言

1986년이 밝아온다. 새해이다. 모든 사람이 希望을 갖고 새覺悟를 갖고 始作할 수 있는 時期이다. 때마침 國際的인 展望 역시 비교적 밝고 日本이 円貨高로 해서 우리에게 비해 不利하고 美國이 改定된 換率로 해서 우리의 製品이 더 싸게 되고 競爭力이 생겼으며 유럽 貨幣들에 비해서 달라-價値가 下落했으니 우리의 輸出品價格이 덩달아 싸져서 잘 팔릴 수 있는 立場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80年代에 들어서서는 設備投資에 있어서 果敢하지 못했던 結果가 國際競爭의 立場에서 우리에게 지금 有利한 것으로 해주고 있다고는 말할 狀況에 있는 것도 事實이며 겹쳐서 社會不安이 새로운 投資의 意慾을 꺾고 있으며 庶民들의 購買力에 있어서도 크게 希望的으로 볼 수 있는 時點은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에 있어서 韓國의 企業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을 걸어와서 落後된 農村에 農村指導部署의 必要性이 있었던 것과 같이 政府의 指導를 받을만 하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經濟學者가 豫測을 주저할 만 한 昏迷의 樣相으로서 어느 業體가 어떠한 方法으로 해서 살아 남을지는 簡單하게 짐작이 안될 多樣化 時代로 突入하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共通의 有效한 解決方法이란 없다.

1. 多樣性的 時代

物價가 한결같이 오르는 時期에는 物價政策도 쉬웠다. 잘못 策定한 物價도 時間이 흐르면 相對的 位置가 下落하게 되니까 그 다음 價格引上을 比較的 늦게 許容하면 相對的 位置를 되잡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物價가 比較的 安定된 狀態에 있을 때 잘못 策定된 價格은 그것을 修正하지 않고 固守하다 보면 여러가지 無理가 나타나고 처음에는 이것이

妥當하지 않음을 모르고 지났던 사람들도 드디어는 알게 되곤 한다. 한동안 物價가 安定된 狀態에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바-게인 세일의 價格의 實感을 느끼는 時代가 되었다. 繼續 物價가 올라가는 樣相을 維持하고 있을 때에 여러가지 有效한 處方을 내 놓을 줄 아는 사람도 흐름이 멈추고 다음에 各各의 變動方向이 다를 수가 있게 되면 서로 다르게 움직일 것들에게 共通의 處方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해는 거칠게 말해서 어려운 해였다. 그러나 敢當 못해 亡한 會社들도 있었던 一面, 年末에 配當金을 줄 수 있었던 會社도 있었고 繼續 生産라인을 擴張하고 工員 新規 採用을 繼續한 會社들도 있었다.

같은 處方 갖고도 같은 結果가 나오지 않게 되었으며 같은 下請工場으로부터도 이를 다그치는 方法에 따라서 納品 받은 製品의 質이 같지가 않은 多樣性的 時代가 된 것이다. 國際入札에 應札하여서도 最低의 價格이 아닌데도 信用을 얻어 契約을 따낼 程度의 底力을 갖게 된 會社들도 생겼다. 그러한 多樣性的 時代가 된 것이다.

2. 民間主導型으로

官에서도 일찌기 官主導方式의 限界를 實感해서 民間主導型 産業을 標榜하고 나섰다. 그리고 各種 寄附金이 주는 原價上昇要因의 國際的 競爭力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는 것이 認識되기 始作하였으며 經濟團體에서 이러한 것의 不當함이 公開的으로 指摘되게 되었다.

치열한 國際競爭의 立場에서는 이러한 寄附金들을 人心 좋게 주어버리면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始作한 것이고 企業의 냉혹한 現實을 알게 되었으며 한 社會의 通念과 道德律의 노

에로 남아人心 좋게 舉動하면서도 國際的인 價格競争에 勝자가 될 수가 없다는 냉혹한 現實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企業體로서 또는 企業人으로서 成熟하게 된 것이다.

十年, 二十年前에 비해서 企業 運營에 私情을 두지 못하게 되었으며 關聯有力者에 對해서도 厚하지 않은 않게 되었으며 官邊에서도 寄附金 등을 밝혀 陽性化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어렵게나마 韓國全體가 成熟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만 하다.

3. 觀念과 現實

오랫동안 名分에 휘말려 왔고 觀念的인 體質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왔으나 지금에 있어서는 企業 또는 個人에 따라서 相當한 差異가 생겼다. 그래서 韓國의 電子業界에 對한 提言은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은 指摘할 수가 있을 것이다. 即 企業을 이끄는 立場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政府에 기대는 體質에서 벗어나 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政府에서는 過度한 關與와 干涉을 止揚하고 物價上昇의 要因, 따라서 賃金上昇의 要因인 間接課稅를 輕減하고 豫算을 縮小하여야 할 것이다. 時代가 달라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企業들은 體質을 改善해야 할 것이다.

韓國企業에 對해서 가장 값비싸게 먹히게 될 것이 信用이라는 無形의 商品이 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從業員들의 새 人間象을 만들어야 한다. 억지스럽지 않고 어른스러운 마음가짐이 그리고 洗練된 매너가, 希望性 있는 企業의 從業員들에게서 제법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傾向이 自然히 다른 企業, 그리고 既存市場, 그리고 公務員의 社會에까지 波及되어 갈 것을 믿고 疑心하지 않는다.

한 社會에서 없었던 것을 始作하기란 무척 어려운 것인데 一部業體에서 이러한 새 人間象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꼭 必要한 데에서 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막연하게 形成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社會의 成熟

韓國社會가 異例的으로 規制가 많은 社會였다는 過去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規制만을 重要視하고 規制에 따라가는 것만을 能事로 生覺해서는 안되고 自己의 眞正한 力量을 키워야 하고 客觀的인 難關이 있으면 學論하여야 한다. 그 옛날의 方法에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는 實業人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現實을 冷徹히 判斷하는 能力을 發揮하여 自己企業體의 長期信用을 조용히 길러가야 할 것이다. 옛날의 方法에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는 實業人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規制가 甚한 社會일수록 어른되기가 힘들고 어른이 적을수록 規制의 妥當性에 根據를 주게 되는데 그러한 時代가 너무 오래 끌어 왔던 것 같다. 그러나 事業의 興亡에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 國內외의 與件을 改善해가면서 自己가 겨누는 部門에서는 거의 世界第一이 되어야 한다. 國防問題等 國內의 與件의 特異性이 감안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競争者에게 利用되는 것이 現實이다. 官을 說得해서 競争에 不利한 規制들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 義務가 모두에게 있다.

5. 結論

個別的인 努力으로 成功을 이루어야 하는 時代가 되서 어떠한 狀況 속에서도 앞으로의 展望이 業體의 力量에 달려있기 때문에 多樣化를 指向하여야 하고 따라서 規制一邊倒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韓國의 1986年은 與件으로 보아서는 多小間 좋은 편이다. 이것은 잘 하면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好機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課題는 政局의 安定이 될 것이다. 이것 없이는 새로운 投資를 意慾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高成長時代에 말없이 뒤로 미뤄올 수 있었던 民主化와 貧富의 極甚한 隔差等의 問題가 低成長과 失業의 難題와 함께 今年에는 極甚하게 學論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展望을 安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의 發達에 比例한 民主化의 日程이 確立되어야 그 작은 好機나마 우리들의 손에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다. 民主化는 이제는 奢侈品이 아니고 經濟成長의 必須條件임이 認識되어야 한다.